# 광주·전남 都·農 실력차 '뚜렷'

## 학업성취도 평가, 중고생들 광주·여수·순천 등 월등

### 광주, 초등 서부·중등 동부 강세

광주·전남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도·농 지역간의 실력차가 확연하게 드러났고, 지역 내 학력차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 초등학생들은 전남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떨어진 반면 광주 중·고교생들은 전남 학생을 월등히 앞질렀다.

광주 초등학생 가운데 보통학력 이상인 학생의 비율은 국어 79.7%, 사회 67.3%, 수학 81.9%, 과학 82.4%, 영어 81.0%로, 영어를 제외한 전 과목에서 전남(국어 84.6%, 사회 71.6%, 수학 82.1%, 과학 85.2%, 영어 79.4%)보다 뒤졌다.

그러나 중학생부터는 역전 현상을 보였다. 광주 학생들이 전 과목에서 전남 학생을 앞섰으며 고교생들은 격차를 더 벌렸다.

특히 영어는 광주의 보통학력 이상인 고교생이 73.5%인데 비해 전남은 60.6%에 그쳐 12.9%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이 외에도 수학(9.6%p), 국어(7.8%p), 과학(6.3%p), 사회(3.7%p)도 큰 차이가 났다.

전남 시·군별로도 도농 지역 간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중학교 영어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이 여수 63.4%, 순천 63.1%, 광양 59.3% 등으로 산업활동이 활발한 동부권 시·군이 전남 지역 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신안(37.2%), 무안(38.5%), 장흥(44.9%), 완도(46.6%) 등 농업·도서 지역은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하위권에 그쳤다.

중학교 수학도 보통 이상 학력 학생 비율이 순천(51.9%), 광양(50.7%), 여수(50.6%), 목포(46.7%) 등 도·농 복합 지역은 높게 나타난 반면 신안은 절반 수준인 27.2%에 불과했고, 진도, 장흥, 구례 등도 30%대에 머물렀다.

광주에선 동부(동구, 북구)와 서부(서구, 남구, 광산구)지역 초등학교 간 학력차를 보였다.

우선 과학 과목의 경우 서부가 84.4%로 동부(79.0%)보다 5.4%포인트 앞섰고, 국어도 81.4%와 76.7%로 4.7%포인트의 격차가 났다.

수학과 사회도 서부가 각각 83.5%와 68.9%를 기록한 반면 동부는 79%와 64.6%에 그쳤으며 영어도 각각 82.2%와 78.9%로 3.3% 포인트 벌어졌다.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동저서고(東低西高) 현상에 대해 서부교육청 관내가 서구와 남구 등 신흥 택지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가 형성돼 학업 성적이 전반적으로 나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반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각 과목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동부가 국어, 과학, 영어에서 서부보다 최대 1.9%포인트(영어) 높았으며, 서부는 사회와 수학에서 0.3~0.4% 포인트 높아 혼전 양상을 보였다.

한편 광주지역 초등학교는 동부 55개교, 서부 84개교 등 모두 139개교에 학생 수는 12만8천900여명이며 이번에 시험을 치른 6학년 학생 수는 2만1천800여명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서열화·신뢰도 논란

### 학업성취도 평가 전교조 등 비판

16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로 지역간 학력 격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서열화 논란이 일고 있다. 평가 자체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성적 공개 후 학교 현장의 현실은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보다는 시·도 및 지역교육청·학교별 성적 올리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비교육적인 성적 경쟁을 유도해 학교를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 경우 국민적 저항을 몰고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전국적인 기초학력 미달 학생수를 파악하고, 이들을 집중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계 안팎에선 이번 평가 자체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수능 등 다른 종류의 국가 시험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지고 내신에도 반영되기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에 응하는 자세부터 흐트러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온 일선 교육청들도 해당 학교에서 시험 감독을 하는 학교별 시험감독 방식 등을 들어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나우in참

## 순천 장애 여성 살해

## 40대 용의자 검거

광주병무청 징병검사 16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된 올해 첫 징병검사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혈압을 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순천경찰은 16일 20대 장애 여성을 모텔 방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부모(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씨는 지난 8일 오후 순천시 조례동 한 모텔에서 소아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김모(여·28)씨를 가방 끈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결과 김씨의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김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고속도로 CCTV에서 사라진 피해자의 차량을 찾아내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벌였다.

부씨는 범행 직후 김씨의 차를 훔쳐 타고 부산으로 도주해 기장군의 한 모텔에 숨었으나 수배전단지를 본 한 시민이 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에 제보해 범행 일주일여 만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부씨가 6년 전부터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온 김씨가 최근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최하위라니…" 곡성교육청 울상

### 지역교육청 희비 엇갈려

16일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놓고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이 어수선한 분위기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은 초등학교 6학년이 전 과목에서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은 곡성 교육청 때문에 울상이다.

전남의 대표적 오지인 곡성은 학생수가 워낙 적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목마다 30%p 안팎의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이 지역 학생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45.2%(사회)에서 50.0%(영어)로 인접한 구례지역과 비교해도 최소 26.2%, 최대 34.4%p 차가 났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4.2~8.5%로 구례 등 다른 지역보다 배가량 높았다.

광주시교육청도 고등학교 평가에서 전국 2위에 올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한때 잔뜩 고무된 모습을 보였으나, 광주지역 초등학생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최하위인 데다 전남지역보다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시 교육청은 이날 올해를 '일선 학교 기초학력 부진 학생 제로화'의 원년으로 선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교육청 "학력 미달 제로화 원년"

광주시교육청은 16일 "올해를 일선 학교 기초학력 부진학생 제로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초등 2%, 중학교는 10%, 고등학교는 5% 안팎으로 분석된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비 21억원을 투입, 부진학생 개별지도를 비롯해 전 학교에 대한 기초학력 향상 컨설팅과 국어, 수학, 영어 등 5개 과목 보정 프로그램 개발 지원, 기초학력 향상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또 기초·기본학력 담임 및 학교 책임제, 방과후 학교와 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도 마련했다.

시 교육청 문재옥 장학관은 "부서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올해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아빠와 말다툼 고교생 투신

15일 오후 12시15분께 목포시 연산동 J아파트에 사는 K(17)군이 이 아파트 1층 화단에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이웃 주민 고모(47)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전남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인 K군은 사고 직전 아버지와 심부름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 격투기 단련 행인에 KO 당한 강도

**쌍나팔**

○…어설픈 강도가 20대 여성의 손가방을 뺏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종격투기로 단련된 행인과 맞닥뜨리는 바람에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은 16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대광빌딩 앞 도로에서 전모(여·24)씨를 폭행한 뒤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이모(20·부산시 해운대구)씨에 대해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씨는 전씨의 가방을 들고 30여m를 달아났으나 때마침 이 곳을 지나던 선모(26)씨와 선씨의 선배 조모(28)씨와 격투 끝에 붙잡혀 경찰서행.

○…선씨는 경찰에서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와 검도를 배우다 4년 전부터 이종격투기 선수가 되기 위해 운동을 해왔다. 힘없는 여성을 돕게 된 것 만으로 기쁘다"며 흐뭇한 표정.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여자친구와 헤어져라" 고교생 감금 폭행·물고문

### 담양경찰, 30대 2명 조사

한 고교생이 30대 남성 2명에게 3시간 동안 감금된 채 물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담양경찰 등에 따르면 담양모 고교 2년 L(18)군은 지난 15일 밤 11시께 광주시 북구 우치동물원 앞 저수지로 끌려가 M(33)씨 등 남성 2명으로부터 물 고문을 당했다. 이들은 L군의 양 손을 결박해 양복 케이스에 집어넣은 채 둔기로 머리 부분 등을 구타했다. L군은 또 3시간 동안 M씨 등이 몰고 온 승용차에 감금당한 채 광주와 담양 일대로 끌려다니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L군은 경찰에서 "M씨 등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 끌고 가더니 '현재 교제중인 여자친구와 헤어지라'는 말과 함께 주먹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M씨 등이 "L군과 교제중인 여성의 어머니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M씨 등은 범행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